

# [속보] 반2MB 72시간 릴레이 국민촛불 현장

⌕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6.05 17:51

<b>[8신대체/03:20] 시민대오 세종로네거리집결 새벽 내내 항의농성 벌여</b>

[사진7]

새벽 3시20분 현재 1만여 명 시민들이 세종로네거리 왕복 8차선을 점거한 가운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세종로네거리와 덕수궁 앞쪽에 텐트를 쳤다. 또 어떤 시민들은 모포와 침낭, 돛자리 등을 준비하고 가족과 함께 세종로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현장에는 경찰 측이 정동네거리 방향으로 진입, 새벽4시 진압한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지만 시민대오는 새벽 3시25분 현재 흐트러짐 없이 자유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생명의 밥, 건강한 밥을 요구하는 시민대오들이 몰려들고 있다.

전남 여수에서 상경한 이종면씨(37세)는 세종로네거리 농성투쟁에 참가하면서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반드시 이긴다"며 '화이팅'을 외친다. 세종로네거리 1만대오는 "이명박퇴진, 비폭력"을 외치며 농성 중이다.

<b>[7신/00:15/6월6일]시민들 경찰청앞 항의집회중, 일부 시민들 청와대로 향해</b>

시민들이 반이명박 투쟁을 벌이며 다시 하루를 넘겼다. 자정을 넘어본 넘긴 시각 경찰청 앞에서 경찰폭력에 항의하며 어청수 퇴진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벌이는 가운데 수천여 시민들이 청와대 행진 투쟁에 나섰다.

[사진6]

<b>[6신대체/23:55] 시민대오 경찰청 진격 '어청수 나와라!' 항의 시민 수천명 청와대 진격, 사직터널 경찰대치 연좌농성 돌입</b>

저녁 11시40분, 세종로네거리에 집결한 수만명의 시민들이 두패로 나눠 경찰청앞과 사직터널 쪽에서 '어청수파면, 이명박퇴진'을 외치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이 시각까지 경찰과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11시42분 현재 경찰청 앞으로 대부분의 시민대오가 집결 중이다. "어청수 나와라!"는 구호가 요란하다.

무고한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군화발로 짓밟았으며 곤봉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집단구타하면서까지 촛불을 꺼트리려는 국가폭력에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청을 뒤덮었다. 경찰청 앞에는 차벽이 설치돼 있다. 사직터널 쪽도 경찰이 차벽을 세워 청와대 접근을 차단했으며 시민대오 수천명이 경찰과 대치한 채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저녁 11시55분 현재 새로운 시민대오가 "어청수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1진에 합류하고 있다. 수만명이 경찰청 앞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b>[5신/22:20] 10만 시민들 세종로네거리 장악</b>

반이명박을 외치는 10만 이상의 시민들이 세종로네거리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 행렬은 세종로네거리에서부터 종로통을 가득 메운 상태다. 한 시민은 2MB는 결국 집토끼, 산토끼 모두 잃어버렸으며 개발독재시대 불도적으로 밀어부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로네거리에 집결한 10만 시민들은 흐트러짐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경찰과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5]

<b>[4신/20:50] 시민 참가자들 계속 불어나, 5만여 시민들 촛불행진중  
'고시철회 협상무효, 이명박 퇴진' 외치며 거리행진중</b>

75분 간의 촛불문화제를 평화롭지만 힘있게 정리한 3만 이상의 시민들이 8시20분 “가자! 청와대로!”를 외치며 일제히 대행진에 돌입했다. 시민대오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5만명 이상을 웃도는 것 같다. 행진은 8시20분경 시작됐고 행진 선두는 남대문로를 지나고 있지만 20여분이 지난 이 시각까지 시청광장 쪽에 모인 시민들이 행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 소식이 타전됐다. 이 추세로 간다면 10만 시민 결집도 가능할 것 같다.

경찰은 세종로네거리 이순신 동상 앞쪽에 차벽을 세우고 경찰병력을 대거 배치했다. 저녁 8시50분 현재 시민 촛불행진단은 먼저 남대문을 통해 안국동쪽으로 행진 중이다.

방송차와 각종 깃발들이 선두에 섰고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올리며 함성을 지르고 손피켓을 흔들며 행진투쟁 중이다. 시민들은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공유하는 표정이다. “쥐를 잡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이명박은 물러나라” 는 구호를 터트리는 시민들의 거대한 촛불이 서울을 뒤덮고 있다. 노래 ‘광야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헌법제1조’ 등이 흐르고 촛불시민들은 다시 6월의 거대한 항쟁을 기억하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은 물러나라!”

<b>[3신대체/20:05] 태평로 3만시민 운집, 촛불문화제 평화롭게 진행중  
성신여대, 이화여대, 서울대, 서강대, 홍익대 등 동맹휴업 성사, 현장 합류  
시민 자유발언 이어져 "2MB는 미국쇠고기 판매과장인가, 국민소리 들어라"</b>

[사진4]  
저녁 7시50분 현재 덕수궁 앞 태평로에서 촛불문화제가 시작됐고 이 시각 현재 평화롭게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촛불문화제 본행사는 저녁 7시5분에 시작됐다. “시청광장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등장한 72시간 릴레이행동 분대회 사회자인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민주주의 말살하는 경찰을 폐차하라, 촛불집회 방해말고 민생치안 제대로 하라, 시청광장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구호를 유도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덕수궁 앞 태평로 일대는 시민들이 장악했다. 72시간 릴레이 국민촛불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네티즌, 시민들이 일제히 반이명박 투쟁 전선에 나섰다. 저녁 7시7분 현재 지난 4일부터 시청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한 비상시국회의의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를 보냈다.

시민들은 촛불농성단을 박수와 함성으로 격려하고 헌법제1조 노래를 합창하며 “국민무시 명박심판, 서민말살 명박심판” “이명박이 배후다, 이명박을 수사하라” “이명박을 심판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자” “종교인이 앞장섰다, 이명박은 회개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촛불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아이들의미래를걱정하는엄마들의모임인 미인계(미모와지성을겸비한인성성좋은엄마들의계모임 <http://cafe.naver.com/miingye.cafe> 대표운영자 김아영)이 지난 4일에 이어 각종 음료수 등을 포함한 먹거리를 행사 현장에 기증해 훈훈함을 더했다.

대학들도 속속 촛불투쟁에 결합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 등이 동맹휴업 총투표를 성사하고 촛불집회 현장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도 무대에 올라 공무원을 철밥통으로만 부르지 말고 도와달라며 앞서 쇠고기 협상 무효 전면재협상이 필요하다며 양심 선언한 공무원 노동자도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은 저녁 8시05분 현재 시민참가자가 3만 이상 집결 중이다. 계속 밀려들고 있다. 다음은 시민 자유발언 전문.

<font color=darkblue><b>◆정광훈 의장</b>=저는 해남에서 고구마 물주다가 서울 올라와 촛불을 키고 있다. 내가 서울에 안올라오게 생겼나. 2MB가 미국 쇠고기 판매과장이 됐는데 이러면 되나. 정운천을 비롯해 이들이 이러면 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당시에 자기가 당선되는 줄 알았고, 취임식한 다음부터는 자신이 대통령인지 모른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 자신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 판매과장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그를 대통령, 쥐박이 등으로 부르지 말고 미국 쇠고기 판매과장으로 불러라.

네티즌들도 많이 왔고 잘 하고 있다. 지금 2MB에 맞선 사람들, 바로 키워리어들이다. 이게 보통 촛불인가? 바로 등대불이다. 이 말 이, 이 손가락이, 이 촛불이 2MB를 태우고 있다. 네티즌들이 2MB 태우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농민들이 햇불 들고 나올 것이다. 2MB,

정운천과 미국 쇠고기 판매과정 사전협약이 끝나고 리베이트 다 먹었지 않나. 미국이 물러서겠나. “송아지 송아지 광우병 소 애미, 엄마소도 부시소 맹박이 닳았네” Our Word is Our Weapon!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다. 네티즌 잘 한다.

<b>◆시민 서동진</b>=카메라를 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얼굴 촬영 삼가달라. 올라온 이유는 첫째 사과를 하고 싶어서다. 87년 6월 이 거리에 나온 분들이 있다. 정말 죄송하다. 87년 6월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당시 초등학교 담임선생이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2학년을 보고 지금 거리에 나간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초등학교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난 그게 진실인 줄 알았다.

두 번째 사과를 드린다. 저는 교회에 다닌다. 기독교 종교인과 뉴라이트가 우리를 친북좌파라고 말하며 배후가 있다고 몰아부쳤다. 지금도 시국기도회를 한다고 한다. 거기서 무슨 말을 할지 정말 불안하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젊은 사역자 말을 들어달라. 우리들이 무식한가? 우리들이 광우병을 알지 못하는가? 우리들이 비과학적인가? 한번 맞짱 뜨자. 누가 비과학적인지.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자율규제를 말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와 전면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도 협상다운 협상을 해야 한다. 만약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반미치광이가 자동차를 몰고 이 광장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누군가가 뛰어들어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야 한다.

<b>◆고3 김여진</b>=지금 집에는 도서관 간다고 말하고 이 자리에 섰다. 고3은 육체적 정신적 정치적 의견을 무시당하곤 한다. 입시공부를 통해 무엇을 얻는지 잘 모르겠다. 험난한 입시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 또 언론은 20대를 욕한다. 20대가 뭘 잘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교육 관련해 숱한 만행을 저질렀다. 그는 좀 더 악랄하고 구체적으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이대로 하면 안 되지 않나. 나중을 위해 현재의 영혼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조중동이 배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고 싶으면 제가 다니는 학교를 배후로 지적하라. 고3 담임선생님들도 고생 많다. 왜 담임선생님들이 시위현장에 매일 끌려 다니며 나와야 하나.

<b>◆문대골 목사</b>=두 주 전에 세계 최대 교회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조아무개 목사가 지금 원로목사로 터닝했지만, 어떤 모임에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자들은 특히 중고생들은 사탄 꼬임에 놀아나고 있다는 말을 했던 사실을 아시고 있다. 조금 전에 젊은 발언자께서 기독교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목사로서, 조아무개 목사같은 발언이 기독교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기간에는 어느 철없는 목사가 “이명박 장로를 찍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꺼야”라고 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

여러분, 조직교회가 역사의 답이 아니라는 점을 역사 속에서 알고 있다. 조직 속의 크리스천들도 교회가 역사의 답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 앞에 그러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의 가장 값진 것 중의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예수가 역사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는 역사의 밥이다. 예수가 살던 시대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이스라엘 남부에 살고 있다. 예수는 몰랐다. 중부에서 북부로 올라가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힘내라고 말했다. 예수는 역사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광명시 문광현(60세)</b>=젊은 청소년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친형이 경제단체 리셉션에서 실직하고 일자리 없이 길거리에서 해매는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있고 어려운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이곳에 모여있다고 말한다. 이 정부가 항복할 때까지 이 촛불은 꺼지면 안 된다.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말씀드린다. 오늘 국회가 개원됐다. 국민 자존심과 생명을 헌납한 이명박 정권하의 국회에서 뭘 할 수 있나. 오로지 악법만을 만들 것이다. 쇠고기 문제 완결될 때까지 국회에 등원하지 말라. 세비도 받지 말고 국고에 헌납하라. 이곳 많은 국민들이 누구를 위해 있나? 당신들이 과연 국민대표인가? 세비를 헌납해달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b>◆성신여대 24대총학회장 유승현</b>=오늘 성신여대 등이 총투표로 동맹휴업을 결정했다. 광우병 쇠고기를 막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왔다. 많은 대학들이 동맹휴업 결의를 모으고 있다. 부산지역 대학들이 성사했고 오늘 성신여대도 동맹휴업을 성사시켰고 다음 주에는 고려대도 총투표에 돌입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 일요일 군함발로 시민을 짓밟는 무시무시한 현장에 있었다. 우리가 폭력을 없애기 위해 그들을 갈아 치우는 것만이 최상이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서울대 음대 여학생 머리를 짓밟는 전경 모습을 보고 분노 대글이 달리는 걸 봤다. 그 전경을 사법처리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전경 하나를 사법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이명박 정부는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

국민 목숨 담보로 무시무시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그어가면서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폭력만 강해진다. 우리들 모두 더욱 더 큰 목소리와 행동으로 함께하면 좋겠다. 대학생들이 책을 덮고 거리로 나서고 있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물류창고를 막고 있다. 이런 흐름을 더 크게 만들어 가자. 학교는 바로 이곳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배우고 공부하고 돌아간다. 대학 기말고사 기간이다. 방학 때도 더 크게 뭉치고 외치겠다.</font>

<b>[2신대체/18:45] 네티즌 시민들 72시간 릴레이행동 돌입  
시청광장 주변 대기 중이던 시민들 일제히 태평로로 쏟아져 나와</b>

[사진3]  
오후 6시 현재, 서울 시청광장 맞은 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촛불문화제 행사 무대 차량이 설치됐고 시민들은 덕수궁 앞과 시청광장 분수대 쪽으로 모이고 있다. 시민들은 본행사 시작을 앞두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빵과 음료수로 배를 채우고 있다. 시청광장 분수대는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6번 출구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면 나온다.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이날 예기치 않은 시청광장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떤 충돌도 원치 않으며,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공작을 벌이더라도 우리는 곳곳이 촛불문화제와 그 현장을 지킬 것”이라며 “네티즌, 시민들과 함께 예정한 데로 72시간 촛불릴레이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생들도 이날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촛불집회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새벽 2시40분경 시청광장 분수대 쪽에서 한미쇠고기협상을 비판하며 분신한 김경철(56, 서울 노량진) 씨는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2]  
네티즌·시민은 72시간 동안 서울 시청광장을 중심으로 촛불집회와 대시민선전전, 촛불농성 등을 펼치고 오는 6월10일 21주년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오후 6시42분, 시청광장 일대에 모여있던 시민들이 일제히 태평로로 쏟아져 나왔다. 덕수궁 앞 차로는 전면 차단됐다. 72시간 릴레이촛불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b>[1신/6월5일/17:50] 한미쇠고기협상 전면 재협상, 이명박 정권심판 72시간 릴레이농성 돌입 속 시청광장 촛불문화제 장소 덕수궁 앞으로 긴급 변경, 평상시와 다름없이 촛불집회 준비</b>

서울 시청광장 촛불집회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특수임무수행자회(사무총장 오복섭)라는 단체가 시청광장에 북파공작 특수임무 전사자들 위패 등을 설치하고 합동위령제 행사를 가진다며 시청광장을 장악했다.

이에따라 5일부터 7일까지 72시간동안 시청광장을 중심으로 비상시국 릴레이농성 등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촛불문화제도 장소 문제를 놓고 긴급히 장소 변경과 함께 충돌방지 등의 대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 것.

북파공작단체 오복섭 사무총장은 북파공작 전사자 합동위령제 행사와 관련해 “5일 저녁 7시부터 6일 오후 5시까지 2천5백여 명의 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행사를 치를 것”이라며 “지난 1948년 8월15일 이후 2006년말까지 집계한 전사자 7728명 각 자에 대해 108배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전에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신문방송 등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합동위령제를 치를만한 장소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2주전부터 행사를 기획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촛불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촛불집회 관계 단체와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그럴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누가 누구에게 하라말라 할 권한은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사진1]  
이에 따라 네티즌단체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일단 단체와의 충돌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일단 서울 시청광장 분수대(덕수궁 대한문앞) 쪽으로 모일 것을 호소했다.

한편, 북파공작원 단체가 위패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광경을 본 노인들은 “이명박이가 좌우를 갈라 데모를 벌이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으로서)정말 분하고 원통하다”며 이명박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드러냈다.

북파공작원들은 그동안 그 실체가 가려져있다가 지난 해 7월 배상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올해 1월 단체를 설립했고 서울 시청광장에서 합동위령제를 치르기란 이번이 처음이다.

오후 5시45분 현재 시민들이 시청광장에서 벌어진 예기치 않은 장면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다. 학생과 네티즌, 시민들은 시청광장 분수대 쪽에 모여 양초 작업을 하는 등 평상시와 다름없이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mailto:kctu@nodong.org)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